

전남 응급시설·구급지도의사 태부족 심정지 환자 생존율 전국 최저



응급환자 심폐소생

골든타임 허비 일쑤

■. 지난 13일 오전 10시57분께 목포시 상동 한 목욕탕에서 김모(79)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은 5분 이내에 도착했다. 김씨는 이미 심정지(心停止)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에서 오모(45)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쓰러진 오씨를 발견한 수영강사 송상록씨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했고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이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 오씨는 송씨의 전문적 응급조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건졌다.

전남지역에서 심장마비(정지)를 일으켜 병원 응급로 옮겨진 환자 중 생존율 확률이 1.3%로 나타났다. 100명중 1.3명 꼴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시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숙한 대처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고령자가 많이 사는 지역임에도,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구급지도의사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정지 환자 생존율 보니

전남 1.3% 서울 8.9%

대전 8.2% 부산 5.4%

14일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심장마비를 일으켜 전남 지역 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간 환자들의 소생률은 1.3%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구급대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 1050명 중 21명만 뇌손상 등 후유증 없이 살아났다는 것으로, 전년도(2.9%)에 견줘 1.6%p 떨어졌다.

전국 16개 지역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전체 평균 소생률(4.9%)은 경남, 서울(8.9%), 대전(8.2%), 부산(5.4%), 대구(6.0%) 등에 훨씬 못 미친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소생률은 4.8%였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확산 및 자동제세동기(除細動器·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도입 등으로 전국 소생률의 경우 ▲2008년 2.5% ▲2010년 3.3% ▲2013년 4.9%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전남만 역행하는 실정이다.

당국의 안전한 인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폐

소생술과 구급대원의 자동 제세동기(전기충격을 발사해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기기) 응급조치가 필수적이지만 노인들이 많은 농촌 지역의 경우 응급조치 등 대처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

보전복지자도 이같은 실정을 감안, 지난 2010년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산부족을 내세워 1년 만에 중단했다. 농촌 지역의 심장마비 환자 등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것이지만 근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없던 일로 됐다.

또 22개 시·군 중 전문적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구급지도의사도 12개 소방서에만 배치돼 있고 나머지 10개 군에는 인력이 없는 형편이다.

미흡한 전남지역 119 구조 시스템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심장마비가 발생한 환자가 뇌손상 등 후유증 없이 살아가기 위한 응급조치 골든 타임은 통상 ‘4~5분’으로, 이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뤄지면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다.

구급차가 일찍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거나 주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하지만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2013년 구급차가 현장에 5분 이내 도착한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게다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비율도 지난해 13% 수준으로 전년도(40%)에 비해 줄어 들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담양 펜션 화재’ 업주 “재산 팔아 피해 감당”

10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황도휴집펜션 업주가 첫 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최씨 부부는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불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는 아파트와 펜션을 매각해 내놓겠다”면서 “피해 만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씨 부부의 재산으로는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배상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유가족, 부상자 등 11명은 최근 최씨 부부, 전남도, 담양군을 상대로 18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2월 6일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합격 위해…혼신의 공중돌기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5학년도 정시모집 체육교육과 체조실기’에 참여한 수험생이 뒤돌아 공중돌기를 하고 있다. 체육교육과 모집 정원 23명에 107명이 지원, 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5학년도 정시모집 체육교육과 체조실기’에 참여한 수험생이 뒤돌아 공중돌기를 하고 있다. 체육교육과 모집 정원 23명에 107명이 지원, 5.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사계약 비리’ 한전 직원 3명 구속

한국전력 직원 3명이 뒤통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4일 뒤통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뇌물수수)로 한전 전 나주시시장 A씨 등 한전 직원 3명을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나주시사 재직 시절 전기 등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공사계약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전기공사업체들에게 일감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한전 공사를 수주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역대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 사용자를 확인중이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복 콘서트’ 황선씨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중복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광양 시험문제 유출 주범은 학교 강사·학원장

지난달 초 광양의 한 초등학교 시험문제 유출의혹 사건은 이 학교 강사와 평소 알고 지내는 학원장 등 2명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광양경찰청은 14일 초등학교 시험문제를 유출한 광양 A초등학교 영어회화 강사 B(여·32)씨와 모 학원장 C(여·34)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4일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수학문제 200문항(학년별 50문항)을 이메일로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학원생들에게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이 문제를 성취도 평가 전일 학원생들에게 풀어 하면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초등학교는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C씨는 8년 전 학원에서 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영어 문제 출제를 맡은 B씨가 우연히 얻게 된 수학문제를 C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의 금융 거래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역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교육청에서 과목당 50문항씩 출제해 각 학교로 보내면 이 가운데 과목별로 25문항씩 학교에서 임의로 뽑아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소방차 절반 ‘골든타임’ 놓친다

5분내 도착 57% 불과

전남지역에서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이른바 ‘골든타임’ 도착률이 57%에 불과해 화재 진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소방차가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상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14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620건이며, 이 가운데 소방차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해 진압한 화재는 57.1%인 1498건이었다.

소방서별 5분 내 도착률은 광양소방서가 72.9%로 가장 높았고, 여수(72.6%), 목포(64.5%), 보성(58.9%), 나주(58.8%), 순천(57.7%), 강진(55.9%) 등의 순이었다. 화순(49.0%), 담양(42.3%)은 도착률이 50%를 밑돌았다. 시와 군 간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소방차가 10분 내 도착해 불을 끈 경우는 606건(23.1%)이었다.

20분 내 도착은 440건(16.8%), 30분 내 도착도 58건(2.2%)에 이르렀고, 18건(0.6%)은 도착시각이 30분 이상 소요됐다.

전남지역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17개 광역단체중 하위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통계가 취합되지 않았지만, 전남지역 도로여건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열악해 소방차 화재현장 5분내 도착률이 낮다”며 “골든타임 내 도착률을 올리려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에는 소방서 12곳, 119안전센터 43곳이 있다. 올해 무안소방서가 개소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이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용 3억8천만원, 보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채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천파크 빌라 34평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304호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시세 및 감정이 - 1억 9천만원
매매 - 1억 6000만원

빌라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H. 010-3605-5000

■ 다음 빌라 32평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번지, 301호
4층 중 3층, 정남향, 즉시 입주가능
현재 전세 4500만원에 임대 중
매매 - 6500만원